



진안군, 학교폭력 예방 토크콘서트 개최

진안군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13일 진안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토크콘서트 '클라시가 다른 리다오스타'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건전한 또래문화를 조성해 청소년들이 즐거운 학교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열렸다.

특히, 토크콘서트에 상담동아리 청소년이 패널로 참여해 또래관계, 학습, 진로 등 학생들의 다양한 고민을 듣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고 학교폭력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퀴즈대회를 진행하여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예방의 개념, 대응법, 예방법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을 배우는 장이 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우리들의 다짐'을 외치며 실천결의를 다지는 시간도 마련되어 스스로 학교폭력예방을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군 관계자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다소 무거운 주제인 학교폭력을 비교적 가벼우면서도 학생들의 사례 중심으로 진행되어 청소년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향후에도 학생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소방서, 신규 소방공무원 4명 임용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는 13일, 신규 소방공무원 4명을 대상으로 실무적응 교육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직원 교육에서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소양 및 실무 대응능력 강화 교육 △공무원 행동강령(청렴교육) △현장활동 안전수칙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이후 각 센터나 구조대에 배치해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게 된다.

특히 신규 임용자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개인별 멘토를 지정해 기존 대원들과의 팀워크 향상을 위한 훈련으로, 재난 시 100%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재실 서장은 "앞으로 각종 재난 현장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평선산단 복합센터 문화생활 프로그램 '호평'

김제시, 자두청·식초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산단 근로자와 시민 소통 시간 가져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12일 지평선산단 내 다목적복합센터에서 '자두청, 자두식초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단지 내 근로자와 시민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달 28일 진행된 생크림 케이크 만들기 프로그램에 이은 후속으로 열리게 되었으며, 무더위와 장마, 고된 업무로 지친 근로자와 지역 주민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전문 강사를 섭외해 30여 명의 참가자와 함께 제철과일인 자두로 청과 식초를 직접 만들어 보면서 산단 내 근로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으며, 또한, 최근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 채용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건전한 여가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후문이다.



최보선 투자유치과장은 "작년 9월에 개관한 지평선산단 다목적복합센터가 김제시 문화 공간이자 휴식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관내 기업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진안 백운면, 광동원 면장 이임·이보순 면장 취임식 열려

진안군 백운면은 지난 12일 면사무소 강당에서 제28대 광동원 면장 이임식과 29대 이보순 면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진안군 7월 1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전춘성 군수, 각 마을 이장, 기관단체장과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석별의 정을 나누고, 신임 면장을 환영했다.

지난 2022년 1월부터 1년 6개월간 면장직을 맡아 온 광동원 면장님은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백운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임사를 통해 광동원 면장은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백운면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백운면민들에게 감사드리며, 백운면을 떠나서도 진안군 전체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이별의 아쉬운 마음을 전했다.

이임식에 이어 이보순 제29대 백운면장 취임식이 이어졌다. 이보순 신임 면장은 1992년 공직을 시작해 주요부서를 거쳐 지난 7월 11일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이보순 면장은 취임사에서 "백운면 주민들에게 친절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책상에서의 행정이 아닌 발로 뛰는 현장행정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갈 것"이라며 면정 수행 자세를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제 교월동 주민자치위원회, 사랑 가득 옥수수 나눔

김제시 교월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최창의)는 13일 주민자치위원회 특색사업인 사랑 가득 옥수수 나눔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20여 명이 참여하여 수확한 옥수수 100여 망을 포장작업 후 관내 어르신들과 어

려운 이웃을 위해 마을 경로당에 전달했다. 사랑의 옥수수 나눔행사는 장마와 무더운 날씨로 인해 지친 어르신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며, 지난 5월 울교마을 인근 토지에 옥수수를 심고 수치가와 거름 시비를 통해 정성들여 재배하고 나눔으로써 작지만 큰 행복을 전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새내기 소방관들, 임실소방서와 함께 '첫걸음'

임실소방서(서장 한동규)의 개소와 함께 6명의 새내기 소방관이 배치돼 임실군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큰 기대가 예상되고 있다.

임실군 지역 재산 안전 및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담당할 임실119안전센터 및 구조대에 배치돼 멘토링제와 함께 현장과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하도록 맞춤형 실무교육을 받고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보여줄 예정이다.

한동규 서장은 "군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만큼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이른 시일 내 업무에 적응해 소방공무원으로써 역할을 다해줄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이번에 임용된 6명의 신규 소방관은 중앙, 광주소방학교에서 19주의 교육을 마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이들은 임실119안전센터 및 구조대에 배치돼 멘토링제와 함께 현장과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하도록 맞춤형 실무교육을 받고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보여줄 예정이다. 한동규 서장은 "군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만큼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이른 시일 내 업무에 적응해 소방공무원으로써 역할을 다해줄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장수군, 민원후견인제·민원처리단축 우수공무원 시상

장수군은 2023년 상반기 민원후견인제 우수공무원과 2분기 민원처리단축 마일리지 우수공무원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민원후견인제 우수공무원으로는 행정복지국 민원과 강북기 팀장이 선정됐으며, 민원처리단축 마일리지 우수공무원에는 환경위생과 황선문 주무관, 건설교통과 강다연 주무관이 선발됐다.

민원후견인제 우수공무원은 복합민원이나 10일 이상의 민원처리를 필요로 하는 민원인에게 안내 및 상담 등 후견인 역할을 수행해 군민의 민원처리 만족도를 향상시킨 6급 이상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처리 건수를 합산해 선정하는 제도이다.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는 3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무에 대해 법정기간보다 단축 처리한 경우 마일리지를 부여한 후, 이를 토대로 누적 점수가 높은 공무원을 선정하는 제도로, 군은 민원처리기간 단축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업무역량을 향상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빠른 민원처리로 군민들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절감해 행정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하고, 앞으로도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응대 자세로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Table with 4 columns: 전주지사, 중앙지사, 남원지사, 임실지사, etc. with phone numbers.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책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Advertisement for '착한신고' (Good Reporting) campaign. Includes a photo of a distressed woman, the slogan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You who reports are a hero), and details about the 112 hotline and reporting procedures.